保健敎育·健康增進學會誌 第17卷 2號(2000. 9)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17, No.2(2000)

미혼남녀의 성행태 및 성의식 관련 요인분석

이선희* · 한성현** · 이명선*** · 조희숙* · 채유미* · 유승현****
* 이화여자대학교 예방의학교실 · ** 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교육학과 ·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과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논 의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영문초록

Ⅰ. 서 론

산업화의 진행에 따른 전통적 가치체계의 붕괴 현상은 물질적 수준에서의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었고(이돈희, 1987) 우리사회에서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의식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혼전 순결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성개방 풍토가 만연되어가고 있다.

1996년 한국 청소년 개발원이 서울지역 중고생 1천 1백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의 45.2%에서 혼전 순결을 지킬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뿐 아니라 홍문식(1990)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지역 내에서 인공유산을 경험한 여성 중 미혼여성이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미혼남녀의 성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짐작케 한다. 혼전 성행위는 성병과 AIDS 문제뿐만 아니라 혼전 임신 등 모자보건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청소년 비행과도 연관되어있어 보건학 관점에서는 물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김수련, 1997).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개인의 성행태 및 성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사춘기 미혼여성의 20%가 임신을 경험하였고 그중 60%가 혼외 혹은 미혼모에 의한 출생이며(Alan Guttmacher Institute, 1998), 성관련 질환의 75%가 15-24세에서 발생하고, HIV 감염자 중 32%가량이 20-29세의 젊은 연

령층임이 보고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중이다(Petosa R, Jackson K, 1991). 실제로 1980년부터 임신예방 프로그램, 콘돔사용 캠페인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된 바 있으며(Caldwell J. C., 1998, UNAIDS / WHO, 1997) 그 결과 최근 미혼모와 젊은 연령층의 성병 및 AIDS 유병률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동안 청소년이나 미혼남녀의 성관련 국내 연구로는 성지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이현숙, 1993; 김영화, 1991; 김종희, 1991; 이논선, 1987; 윤귀재, 1982), 성실태에 관한 연구(김연숙, 1996; 장상희, 1995; 김한경, 1994; 김영희, 1993; 김혜선과 신양재, 1988; 박재욱, 1982), 성의식 및 성행태에 대한 연구(임종권 등, 1994; 박은주, 1993; 이문희, 1993; 김명숙, 1992; 김계숙, 1989; 김희명, 1984; 박말순, 1983; 주성우, 1983) 들이 진행되었으나 단면적인 실태 조사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구체적으로 성의식 및 성행태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접근은 미비한 실정이다.

개개인의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성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이론은 특정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믿음이나 관련 정보를 토대로 개개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음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행위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행위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 사회적인 지지기반 및 관련 교육 등과 같은 촉진요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Fishbein & Ajzen, 1980).

본 연구에서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성행태 및 성의식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성적 행동 모형의 하나인 Triandis모형(Triandis, 1980)을 활용하여 성행위와 혼전 순결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른 미혼남녀의 성행태 및 성의식을 파악한다.

둘째, 주거환경 및 건강행태 특성에 따른 미혼남녀의 성행태 및 성의식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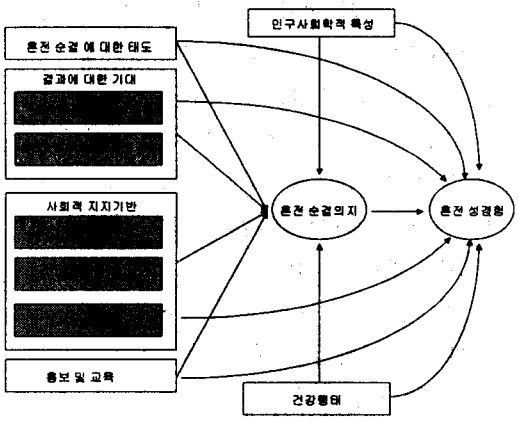
셋째, 미혼남녀의 성행태 및 성의식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순결에 대한 태도, 행위 결과에 대한 기대, 사회 지지기반의 영향력 및 촉진 요인 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틀

이 연구는 이성적 행동이론 중 Triandis모형을 토대로 미혼남녀의 결혼전 성행태 및 성의식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1]. 성행태로는 혼전 성경험을, 성의식으로는 혼전 순결의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들 성행태 및 성의식과 관련된 요소로서 혼전 순결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혼전 순결에 대한 기대, 사회 지지기반의 영향력 및 교육, 홍보와 같은 촉진요인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혼전 성경험 관련 요인으로 혼전 순결의지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최종 연구모형을 도시하면 <그림 1>과 같다.

1) Triandis 모형 및 구성 변수 측정에 대해선 이미 선행연구에서 자세히 설명된 바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였음.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람 '이성적 행동이론에 의한 도시지역 주민들의 일부 건강증진행태 관련요인 분석' 이선희, 조희숙(예방의학회지;32(2): 183쪽-190쪽).



〈그림 1〉 연구의 틀

2. 측정도구

<그림 1>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성행태와 관련하여 혼전 성경험 유무를 조사하였고 성의식과 관련하여 혼전 순결 의지 정도를 측정하였다. 한편 이성적 행동이론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첫째, 결혼전 순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여섯 문항을 조사하였고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둘째, '혼전 순결 결과에 대한 기대는 혼전 순결을 지켰을 경우에 기대되는 결과'와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곱하여 산출하였고, 셋째로 혼전 성경험 결과에 대한 기대는 '혼전 성관계로 기대되는 결과'와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항을 곱하였다. 넷째, 사회 지지기반의 영향력은 사회, 부모, 친구의 영향력을 측정하였는데 '사회, 부모, 친구의 혼전 순결에 대한 가치관'과 '개개인의 사회, 부모, 친구들의 권유에 대한 순응정

〈표 1〉 주요 측정변수에 대한 개요

항 목	내 용	측정도구
혼전 성경험	혼전 성관계 경험 유무	0: 없다 1: 있다
혼전 순결 의지	평소 혼전 순결을 지키려는 의지	
친구의 영향		
친구의 의견	주위의 친구들은 혼전 순결을 중요시한다	
친구에 대한 태도	평소 친구의 의견을 잘 따른다	
부모의 영향		
부모의 의견	부모님은 혼전 순결을 중요시한다	
부모에 대한 태도	평소 부모님의 의견을 잘 따른다	
사회의 영향		1: 전혀그렇지않다
사회 통념	사회에서는 혼전 순결을 중요시한다	2: 그렇지않다
사회에 대한 태도	평소 사회의 기준을 잘 따른다	3: 보통
촉진요인	혼전 순결에 대한 홍보나 교육기회	4: 그렇다
혼전순결 결과에 대한기대	-결혼전 순결을 지켰을때의 결과 ·도덕적 만족감을 얻는다 ·미래에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다	5: 매우그렇다
혼전 성경험 결과에 대한기대	-결혼전 성경험의 결과 ·미혼모가 발생할 수 있다 ·성병 및 AIDS의 위험이 있다 ·정신적 죄책감이 느껴진다 ·경제적 부담이 된다	
혼전순결에 대한 긍정적태도	현명하다/안전하다/가치있다/도덕적이다 좋은일이다/즐겁다	1~ 7점

도'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한편, 촉진요인으로는 흔전 순결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경험 정도를 측정하였다<표 1>.

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조사대상은 고등학생의 경우 서울지역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 두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두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녀별, 학교형태별 (인문계, 실업계)로 층을 나누고 4개 층에서 548명을 추출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은 집락표본추출 방법(cluster sample)으로 각 층에서 3개의 반을 무작위 추출한 후 각 집락의 모든 구성원(unit)을 전수조사 하였다.

직장인의 경우는 2개 회사의 사무직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학생의 경우 2개 대학생 중 과를 단위로 군집 추출한 후 전수 조사하였다.

응답 학생은 대학생 911명, 직장인 203명, 고등학생 548명으로 총 1662명이 조사에 응하였고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사전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측정하였고 Cronba-ch Alpha 값이 0.94-0.97로, 신뢰성을 검증한 후 1998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간 자기 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SPSS를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거환경, 건강행태에 따른 성의식 및 성행태를 조사하였고 회귀분석 및 로지스틱 분석을 통하여 성행태 및 성의식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574명(34.8%), 여자 1074명(65.2%)으로 여자 응답자가 2배 가량 더 많았고, 연령은 20대가 50.4%, 10대가 47.5%였으며 10대의 경우 16세에서 19세의 연령분포를 나타내었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이상이 58.7%이었고 응답자의 대부분(87.8%)이 학생이었다.

거주지별로는 69.9%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가족과의 동거여부를 조사한 결과 25.6%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고, 41.3%는 과거 부모와 떨어져 지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부모의 교육 수준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가 21.5%, 고졸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일반적 특성		명(%)
성별	남자	574(34.5)
	여자	1,074(64.6)
	무응답	14(0.9)
연령	10대	789(47.4)
	20대	837(50.3)
	30대	34(2.0)
	무응답	2(0.3)
교육수준	고졸이하	670(40.3)
	대재이상	976(58.7)
	무응답	16(1.0)
직업	학생	1,459(87.8)
	직장인	203(12.2)
주거주지	중소도시이하	500(30.1)
	대도시	1,160(69.8)
	무응답	2(0.1)
가족과 동거여부	가족과 함께	1,230(74.0)
	가족과 별거	423(25.5)
	무응답	9(0.5)
부모와 별거경험	있다	676(40.7)
	없다.	961(57.8)
	무응답	25(1.5)
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355(21.4)
	고졸이상	1,295(77.9)
	무응답	12(0.7)
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611(36.8)
	고졸이상	1,045(62.9)
	무응답	6(0.3)

이상인 경우가 78.5%였고 어머니의 경우 중졸 이하가 37.9%, 고졸 이상이 63.1%이었다<표 2>.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의식 및 성행태

1) 혼전 순결 의지

혼전 순결 의지에 있어서는 성별, 직업, 교육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남자의 경우 40.0%인 반면, 여자에 있어서는 72.6%로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혼전 순결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었다($p<0.05$). 직업별로는 직장인에서는 70.6%, 학생 60.5%로 직장인에서 강한 혼전 순결 의지를 보였다<표 3>.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혼전 성의식 및 성행태

단위: 명(%)

혼전 성의식 및 성행태 / 인구사회학적특성		혼전 순결 의지			혼전 성 경험	
		약함	보통	강함	있다	없다
성별	남자	158(29.5)	163(30.5)	214(40.0)	118(38.2)	191(61.8)
	여자	79(7.7)	200(19.6)	741(72.6)	79(10.9)	648(89.1)
			χ^2=187.932*		χ^2=105.105*	
연령	10대	118(15.4)	188(24.5)	461(60.1)	38(15.4)	209(84.6)
	20대	116(14.7)	173(22.0)	499(63.3)	151(19.6)	621(80.4)
	30대	4(33.3)	2(16.7)	6(50.0)	8(36.4)	14(63.6)
			χ^2=4.971		χ^2=6.581*	
직업	학생	216(15.5)	334(24.0)	842(60.5)	167(19.3)	700(80.7)
	직장인	23(13.0)	29(16.4)	125(70.6)	30(17.1)	145(82.9)
				χ^2=7.203*		χ^2=0426
종교	있다	15(16.1)	230(24.1)	571(59.8)	122(19.9)	490(80.1)
	없다	85(14.0)	130(21.3)	394(64.7)	84(19.7)	355(82.9)
			χ^2=3.805		χ^2=1.370	
생활형편	어렵다	47(17.5)	65(24.2)	157(58.4)	32(19.4)	133(80.6)
	넉넉하다	190(14.7)	298(23.0)	805(62.3)	164(18.8)	708(81.2)
			χ^2=1.800		χ^2=.031	
부의교육수준	중졸이하	59(18.2)	76(23.4)	190(58.5)	45(21.3)	166(78.7)
	고졸이상	177(14.4)	283(23.0)	772(62.7)	152(18.4)	674(81.6)
			χ^2=3.187		χ^2=.934	
모의교육수준	중졸이하	93(16.4)	130(22.9)	345(60.7)	72(20.5)	280(79.5)
	고졸이상	143(14.4)	231(23.2)	622(62.4)	124(18.0)	565(82.0)
			χ^2=1.160		χ^2=2.921	
부의 직업	없음	22(15.0)	34(23.1)	91(61.9)	27(25.0)	81(75.0)
	전문관리	34(18.5)	40(21.7)	110(59.8)	22(16.5)	111(83.5)
	기술생산	82(14.0)	139(23.8)	363(62.2)	73(18.7)	317(81.3)
	기타	13(21.0)	14(22.6)	35(56.5)	8(18.6)	35(81.4)
			χ^2=3.741		χ^2=3.002	
모의 직업	있다	53(15.6)	83(24.4)	204(60.0)	50(22.7)	170(77.3)
	없다	130(13.9)	205(22.0)	597(64.1)	115(17.7)	536(82.3)
			χ^2=1.759		χ^2=2.744	

*: $P<0.05$, 무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함

2) 혼전 성경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혼전 성경험을 비교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경우 10.9%에서, 남성의 경우 38.2%에서 혼전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 별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 경험률이 증가하여 10대 15.4%, 20대 19.6%, 30대에 36.4%의 경험률을 나타내었고 연령대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그러나 직업, 종교, 생활형편, 부모의 직업 및 부모의 교육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

3. 거주환경 특성에 따른 성의식 및 성행태

거주환경 특성에 따라 성의식 및 성행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현재 거처형태나 거주지, 통근소요 시간과 성행태 및 성의식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과거 부모와 떨어져서 산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순결 의지가 유의하게 강하였으며 독립기간이 짧은 경우보다 긴 경우에서 순결의지가 강하였다($P<0.05$)<표 4>.

4. 건강행태에 따른 성의식 및 성행태

1) 혼전 순결의지

순결의지에 있어서는 자살충동이 없었던 경우가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 충동을 느낀 경우보다 강한 순결의지를 나타내었으나 흡연, 음주, 운동, 약물 및 스트레스 유무와 혼전 순결의지

〈표 4〉 거주환경 특성에 따른 성의식 및 성행태

단위: 명(%)

거주환경특성 \ 혼전 성의식 및 성행태		혼전 순결 의지			혼전 성관계 경험	
		약함	보통	강함	있다	없다
현재거처	가족과별거	52(13.3)	107(27.4)	232(59.3)	57(19.2)	240(80.8)
	가족과함께	185(15.8)	255(21.8)	730(62.4)	140(18.9)	602(81.1)
			χ^2=5.585		χ^2=0.014	
장기거주지	중소도시이하	67(14.2)	103(21.8)	302(64.0)	60(17.6)	281(82.4)
	대도시	171(15.6)	259(23.7)	665(60.7)	137(19.6)	563(80.4)
			χ^2=1.483			χ^2=.584
부모와	있다	79(12.5)	149(23.6)	403(63.9)	83(17.7)	386(82.3)
별거경험	없다	155(17.0)	211(23.1)	548(60.0)	113(20.5)	438(79.5)
			χ^2=5.828*		χ^2=1.290	
독립기간	없음	176(18.3)	245(25.5)	540(56.2)	131(20.6)	505(79.4)
	1년미만	24(12.9)	42(22.6)	120(64.5)	24(21.8)	86(78.2)
	1년 - 5년	22(7.9)	53(19.1)	203(73.0)	28(14.6)	164(85.4)
	5년이상	17(11.8)	23(16.0)	104(72.2)	14(13.5)	90(86.5)
			χ^2=38.399*		χ^2=6.146	
통근시간	1시간이내	133(15.3)	198(22.8)	538(61.9)	104(19.3)	434(80.7)
	2시간이내	68(14.8)	115(25.1)	276(60.1)	67(20.1)	266(79.9)
	2시간이상	38(16.0)	49(20.7)	150(63.3)	26(15.5)	142(84.5)
			χ^2=1.853		χ^2=1.667	

*: $P<0.05$, 무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함

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표 5>.

2) 혼전 성행태

건강행태에 따라 성행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흡연하지 않는 군에 비하여 흡연하는 군에서 성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음주의 경우에도 비 음주군에 비하여 음주군에서 성경험률이 높았고 특히 음주 횟수가 많을수록 성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P<0.05)<표 5>. 약물복용군에서는 성경험이 30.8%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군의 성경험률 18.4%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자살을 시도했었거나 자살을 생각해 본 경우에서 자살충동이 한번도 없었던 경우보다 성경험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운동유무,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성경험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5. 성의식 및 성행태 차이별 이성적 행동이론 구성요인 관계

1) 혼전 순결의지

이성적 행동모형에서 제시되는 변수들과 혼

〈표 5〉 건강행태에 따른 순결의지와 성경험

단위: 명(%)

건강행태 \ 혼전 순결의지와 성경험		혼전 순결 의지			혼전 성관계 경험	
		약함	보통	강함	있다	없다
흡연	피우지않음	152(14.7)	232(22.4)	650(62.9)	60(8.4)	651(91.6)
	하루한갑이하	53(15.3)	71(20.5)	222(64.2)	75(40.1)	112(59.9)
	한갑초과	23(18.5)	41(33.1)	60(48.4)	42(45.7)	50(54.3)
	2갑 이상	11(16.9)	19(29.2)	35(53.8)	20(38.5)	32(61.5)
		χ^2=1.598			χ^2=161.529*	
음주	마시지않음	64(15.2)	85(20.2)	271(64.5)	12(6.6)	171(93.4)
	월2-3회마심	91(14.4)	138(21.9)	401(63.7)	66(14.9)	377(85.1)
	주1-3회마심	47(16.7)	71(25.3)	163(58.0)	45(20.5)	174(79.5)
	거의매일	37(15.5)	69(29.0)	132(55.5)	74(37.6)	123(62.4)
		χ^2=9.755			χ^2=67.955*	
운동	하지않음	89(14.4)	141(22.8)	388(62.8)	72(17.5)	340(82.5)
	운동 함	148(15.6)	221(23.4)	577(61.0)	124(19.7)	505(80.3)
		χ^2=0.624			χ^2=.816	
약물**	복용하지않음	228(15.2)	344(22.9)	930(61.9)	184(18.4)	815(81.6)
	복용한다	10(16.1)	19(30.6)	33(53.2)	12(30.8)	27(69.2)
		χ^2=2.304			χ^2=3.738*	
스트레스	느끼지않음	91(15.3)	135(22.7)	368(62.0)	85(20.1)	338(79.9)
	느낌	146(15.1)	225(23.2)	597(61.7)	111(18.0)	506(82.0)
		χ^2=.061			χ^2=.727	
자살충동	경험없음	161(14.2)	245(21.6)	727(64.2)	141(17.8)	653(82.2)
	한번경험	69(17.0)	112(27.7)	224(55.3)	49(21.1)	183(78.9)
	자살시도	9(30.0)	6(20.0)	15(50.0)	7(46.7)	8(53.3)
		χ^2=15.220*			χ^2=7.015*	

*: P<0.05, 무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함

**: 수면제, 정신안정제, 마약류, 습관성 약물이나 본드, 부탄가스

전 순결의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순결에 대한 태도,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결과에 대한 기대,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을 때의 기대나 사회적 영향력 모두 유의하게 순결의지가 낮은군, 보통군, 높은군의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6>.

2) 혼전 성경험

이성적 행동 모형 구성 변수와 성경험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경험이 없는 군에서 성경험이 있는 군에 비하여 순결에 대한 태도, 친구의 영향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 점수의 경우 성경험군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표 6>.

6. 혼전 순결의지와의 관련 요인 분석

단순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던 일반적인 특성과 이성적 행동모형에서 설명하고 있는 요인들, 흡연과 음주의 건강행태를 다중분석 모형에 포함하였으며 유의한 변수만을 최종 분석결과에 포함하기 보다는 이론에 근거한 구성 요소들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enter 분석방식을 선택하였다.

이성적 행동이론에서 설명하는 요인들을 포함하여 혼전 순결 의지와의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혼전 순결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강한 순결의지를 가지며 혼전 순결을 지킬 때 기대되는 긍정적인 결과와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잘 인지할수록 강한 혼전 순결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부모나 사회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수록 혼전 순결의지가 강하였으며, 혼전 순결에 대한 홍보와 교육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혼전 순결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P<0.0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는 10대에 비하여 30대에서 혼전순결에 대한 의지가 약하며 고등학생에 비하여 대학생에서

〈표 6〉 이성적 행동이론모형의 관련 요소에 따른 순결의지 및 성경험 차이 비교

단위: 평균점수±표준편차

혼전 순결의지와 성경험 / 관련요소	혼전 순결 의지			혼전 성관계 경험	
	약함	보통	강함	없다	있다
순결에 대한 태도	12.7±7.6	17.6±7.7	20.5±7.6	18.0±9.6	13.9±8.0
	F=109.4*			χ^2=5.29*	
순결결과에 대한 기대	23.5±12.9	24.8±13.3	36.1±13.8	27.0±17.2	26.0±13.8
	F=133.3*			χ^2=0.728	
성관계결과에 대한기대	38.5±19.0	44.3±23.5	55.2±22.6	44.3±27.6	42.7±22.1
	F=64.8*			χ^2=.719	
친구영향력	8.4±19.0	10.6±5.1	13.3±6.2	10.4±8.7	9.2±5.5
	F=62.0*			χ^2=2.324*	
부모영향력	12.1±5.4	14.3±5.6	17.9±5.3	13.9±9.6	18.0±8.0
	F=138.5*			χ^2=-1.454	
사회영향력	10.5±4.9	11.5±5.0	15.7±6.1	10.8±6.9	12.7±5.0
	F=122.3*			χ^2=-4.243*	
촉진요인	4.8±1.7	5.2±1.7	5.3±1.8	5.5±2.3	4.4±2.3
	F=11.8*			χ^2=7.147*	

*: $P<0.05$, 무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함

혼전 순결 의지가 약하였다. 그러나 흡연이나 음주 등의 건강행태는 혼전 순결의지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표 7>.

7. 혼전 성 경험 관련 요인 분석

혼전 성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성적 행동 이론에서 설명하는 변수들은 혼전

〈표 7〉 혼전 순결의지 관련 요인 분석

변수		β	SE	Beta	t-value
성별	(남=0, 여=1)	0.03539	0.068	0.012	0.533
연령대	(10대=0, 20대=1)	0.03202	0.058	0.001	0.482
	(10대=0, 30대=1)	-0.40100	0.198	-0.040	-2.053*
직업	(고등학생=0, 대학생=1)	-0.19700	0.066	-0.068	-2.689*
	(고등학생=0, 직장인=1)	-0.11700	0.104	-0.026	-0.678
순결에 대한 긍정적 태도(점수)		0.03870	0.004	0.289	10.949*
혼전순결 결과에 대한기대(점수)		0.00923	0.002	0.102	3.257*
혼전 성관계 결과에 대한기대(점수)		0.00404	0.001	0.070	3.052*
친구의 영향(점수)		0.00671	0.005	0.034	1.422
부모의 영향(점수)		0.05010	0.006	0.230	8.076*
사회의 영향(점수)		0.02684	0.006	0.125	4.442*
촉진요인(점수)		0.08226	0.024	0.073	3.342*
음주유무	(비음주=0, 월1-2회=1)	0.06905	0.070	0.024	1.048
	(비음주=0, 거의매일=1)	0.05121	0.099	0.001	0.052
흡연유무	(비흡연=0, 하루한갑=1)	0.03265	0.075	0.009	0.434
	(한갑초과=1)	-0.06802	0.100	-0.015	0.497

*: P<0.05

〈표 8〉 혼전 성경험 관련 요인 분석

변수		B	SE	OR
성별	(남=0, 여=1)	-0.6737	0.2552	0.5098*
연령대	(10대=0, 20대=1)	0.3104	0.2397	1.3640
	(10대=0, 30대=1)	0.6426	0.5616	1.9013
직업	(학생=0, 직장인=1)	0.7209	0.2751	2.0562*
순결에 대한 긍정적 태도(점수)		0.0027	0.0129	1.0027
혼전 순결 의지(점수)		0.0382	0.0992	1.0389
혼전순결 결과에 대한기대(점수)		0.0135	0.0091	1.0136
혼전 성관계 결과에 대한기대(점수)		-0.0062	0.0054	0.9938
친구의 영향(점수)		0.0222	0.0146	1.0225
부모의 영향(점수)		-0.0142	0.0213	0.9859
사회의 영향(점수)		-0.0329	0.0213	0.9677
촉진요인(점수)		0.0380	0.0909	1.0387
음주유무(비음주 군=0, 월 1-2회=1)		0.4743	0.3575	1.6070
(비음주군=0, 매일음주=1)		1.0695	0.3943	2.9140*
흡연유무(비흡연군=0, 매일한갑 이하=1)		1.3605	0.2553	3.8980*
(비흡연군=0, 한갑초과=1)		1.4262	0.3208	4.1627*

*: p<0.05

성경험과의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서 여성에 비하여 남성의 경우, 학생에 비하여 직장인의 경우 혼전 성경험이 많았다(P<0.05). 한편 건강행태와의 관련성을 보면 비음주군에 비해 매일 음주하는 경우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흡연군에서 성관계 경험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P<0.05)<표 8>.

Ⅳ. 고 찰

본 연구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성행태 및 성의식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 유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행태 및 성의식 분석결과 남자에서 성경험률이 높았으며, 혼전 순결 의지는 여자에서 높았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과도 일치되는 결과로서 (김수련, 1997; 최양자, 1987)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혼전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 유교문화적 성향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사료되며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개방된 성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혼전 성경험률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Jessor가 보고한 문제행동 이론(problem behavior theory)(Jessor & Jessor, 1975)으로 설명이 가능한 바, 청소년들에게 성경험과 같은 행동이 사회 내에서 일종의 성숙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에서 기인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종교의 유무에 따른 성경험 및 순결 의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종교의 종류나 종교생활 기간등을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겠으며 직업의 유무에 따른 성경험의 차이가 없었는데 조사 대상 고등학생에는 실업계 학생이 포함되는 반면 사무직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서 기인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겠다.

거주환경의 특성에 따른 성의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와 별거 경험이 있는 경우 혼전 순결 의지가 높고 독립한 적이 없거나 짧은 경우보다 1년 이상인 경우에서 순결 의지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날 경우 자칫 생활이 분방해지고 그로 인해 성행태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했던 통념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선 여러 현상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겠지만 부모로부터 독립경험이 의식의 성숙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요인이 되지 않았나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청소년기에 있어서 스스로의 생활을 조정해야 하는 독립된 존재가 되면서 혼전 순결 문제를 포함한 성인으로서 미래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인식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건강행태에 따른 성행태를 비교한 결과 흡연군, 음주군, 약물 복용군에서 성경험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음주가와 끽연가의 성경험률이 높음을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김수련, 1997) 건전한 성행태는 건강한 생활행태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한편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충동을 느낀 경우가 자살충동이 없었던 경우보다 혼전 성경험률이 높고 순결의지가 약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역시 정신건강이 성의식 및 성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특히 청소년기에 있어서 성행태는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다루어지기 보다 건강행태의 포괄적 틀 속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접

근되어야 하며 청소년 성교육 과정에도 이러한 개념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혼전 순결의지 및 혼전 성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성적 행동이론에서 제시하는 모형에 근거하여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들 변수들이 혼전 순결 의지 및 혼전 성경험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구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혼전 순결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혼전 순결을 지켰을 경우에 기대되는 긍정적 결과를 인지할수록, 혼전 성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인식할수록, 그리고 부모와 사회의 인식 및 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많이 접할수록 혼전 순결의지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성적 행동 이론에서 설명하는 주요 구성요소, 즉 부모나 사회의 영향력,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순결 의지라는 성행태를 설명해주는데 유효한 변수임을 의미하며 건전한 성행위 의지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으로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태도 함양이 주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Petosa & Jackson(1991)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미혼 남녀에 있어서 혼전 순결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나 편익을 충분히 인식시켜 줌으로써 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높일 수 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혼전 순결에 대해 좀더 효과적인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통한 촉진요인의 함양 활동이 적극적으로 요구되어진다.

한편, 당사자 이외의 부모나 사회적 영향력이 유의한 관련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의 공감대 형성이 청소년에 대한 중요한 전략적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노력들은 개인단위에서의 접근보다는 사회적인 지원체계 조성으로 발전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혼전 성경험과의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음주 및 흡연 등의 건강행태는 단일 변량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혼전 성관계와 관련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이성적 행동 이론에서 제시하는 변수들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고 있었으며 모형에서 강력한 예측인자로 제시한 바 있는 행위에 대한 의지도 본 분석결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이는 본 연구가 단면적인 연구 설계에 의해 수행되었기 때문에 순결의지가 성행동에 영향을 준 것인지, 성행동 후에 순결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인지에 대한 전후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제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단순 분석시에는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내었던 순결에 대한 태도나 친구의 영향력, 촉진요인 등이 다중 회귀 분석시에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행태 등의 혼란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성행태 특징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 청소년의 경우 개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행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그 특징으로 지적하면서 상황이나 사회적 영향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Petosa & Jackson, 1991) 본 연구결과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분석결과 음주횟수나 흡연유무가 순결 의지에는 관련성을 주지 못하였으나 성 행동에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회적 지지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성의식 및 성행태와 관련된 연구들이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반 행태에 따른 영향력만을 분석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성적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에 성의식 및

행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성관련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확대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들이 향후 성교육 및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이성적 행동이론 모형에 근거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거환경, 건강행태, 성에 대한 태도와 성행동 결과에 대한 기대, 사회 지지기반의 영향력 등이 성행태 및 성의식에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15-37세의 미혼 남녀 166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른 성경험률과 혼전 순결 의식 분석 결과, 혼전 성경험률은 남성에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높았으며 혼전 순결의지는 여성에서, 학생에 비하여 직장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거주환경 특성에 따라서 혼전 성경험률에 차이는 없었으나 혼전순결 의지의 경우 가족과 별거하여 생활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고, 독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서 1년 미만보다 혼전 순결 의지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건강행태에 따른 성행태 및 성의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흡연군, 음주군, 약물 복용 경험군이 높은 혼전 성경험을 보였고 자살시도를 했었거나 자살을 생각해본 군이 자살을 한번이라도 고려하지 않았던 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성경험률을 나타내었고 순결의지도 낮았다.

넷째, 혼전 순결 의지와 이성적 행동모형에서 설명하는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혼전 순결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혼전 순결을 지켰을 경우에서의 기대되는 결과와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를 잘 인지할수록, 부모 및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혼전 순결에 대한 홍보와 교육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혼전 순결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혼전 성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경우 성경험이 적었으며, 학생에 비하여 직장인의 경우 혼전 성경험률이 높았고 음주 및 흡연등의 건강 행태와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개인의 성의식 및 성행태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는 바 관련 요인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교육모형이 개발되어야 하겠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방법론적 연구들과 함께 성의식과 성행태와의 전후 관계를 심층분석 할 수 있는 후향적 연구들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김계숙 :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교육, 대한간호, 1989, 24-27
2. 김명숙 : 성의식의 남녀 차이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3. 김수련 :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보건교육석사학위 논문, 1997
4. 김연숙 :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동남보전논문집, 1996, 13, 325-345
5. 김영화 : 청소년 성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6. 김영희 : 청소년의 성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7. 김종희 : 중등학교 여학생의 성지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8. 김한경 : 남녀 근로 청소년의 성행태 비교연구, 성공회대학논총, 1994, 7, 25-39
9. 김혜선, 신양재 : 대학생의 결혼관 및 성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1988, 8, 67-112
10. 김희명 : 서울시내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의식, 성행동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11. 박말순 : 고등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12. 박은주 : 청소년의 성 가치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3. 박재욱 : 대학생의 성지식, 성의식 및 성적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동남대학 학생지도연구, 1982, 3, 3-16
14. 윤귀재 : 남녀 고교생의 성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15. 이논선 : 청소년기 성태도 형성과 그 중요성에 관한 통계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16. 이돈희 : 현대의 한국사회와 청소년의 이데올로기 문제, 청년연구, 1987, 10, 3-17
17. 이문희 : 도시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문제와 성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8. 이현숙 : 중학생의 성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19. 임종권, 김혜련, 장동현, 김주향, 김한경 : 미혼남성의 성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20. 장상희 : 청소년의 성적 허용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21. 주성우 : 중등학교 학생들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22. 최양자 : 근로청소년들의 성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적십자 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87, 9, 17-36
23. 한국 청소년 개발원 : 중고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조사, 1996
24. 홍문식 : 인공임신 중절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25. Alan Guttmacher Institute : Into a New World: Young Women's Sexual and productive Lives, New York, 1998
26. Caldwell J.C : The Construction of Adolescence in a Changing World: Implications for Sexuality, Repoduction, and Marriage, Studies in Familly Planning, 1998, 29(2), 137-153
27. Fishbein M, Ajzen I :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Boston, 1980
28. Jessor R, Jessor S : Problem Behavior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Adolescence in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change and social context. Hemisphere Publishing Corp., Washington, D.C., 1975, 49-61

29. Petosa R, Jackson K : Using the Health Belief Model to Predict Safer Sex Intentions among Adolescents, Health Education Quartery, Winter, 1991, 463-476
30. Triandis HC : Values, Attitude, and Interpersonal Behavior,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Edited by Howe HE. Jr, 1980, 195-259
31. UNAIDS/WHO : Report on the Global HIV/AIDS Epidemic, World Health Forum, 1997, 18, 369-372

〈Abstract〉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sex behavior and attitude of unmarried person

Sun Hee Lee* · Sung Hyun Han** · Myoung Sun Lee***
Heui Sug Jo* · Yoo Mi Chae* · Seung Hyun Yoo****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Medical College of Ewha Womans University
**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Health, Soonchunhyang University
***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Medical College of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factors related to sex behavior and intention to premarital purity on the basis of theory of reasoned action.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Triandis model. Survey was conducted to 1662 unmarried person in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students, and work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or the factor of sexual behavior, male, older age had higher experience to sexual relationship, but for the factor of premarital purity, female and workers than student had higher consciousness of purity.

Positive attitude to premarital purity, expectation toward preservation of purity, parental and social normative influence and facilitating factor such as experiences of sex education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 to intention of premarital purity. Also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health behaviors such as smoking and drinking, sex and job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for sex behavior.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 that educational program to promote good attitude about sex as well as good health behavior should developed and emphasize importance of using theory-based models in conducting health education research.

Key Words : Sex behavior, Sex attitude, unmarried person, Theory of Reasoned Action.